

# ‘빛 없는 보성군’... 효율적 재정운용 빛났다

### 무분별 사업정비...예산편성 주민 참여 투명하게

### 정중해 군수 “현안사업 지방채 발행 않고 추진”

보성군이 부채없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현재 부채가 없는 상태며 주요 현안사업도 지방채 발행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2006년부터 지방채

무 관리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방채 발행 부담이 될 수 있는 무분별한 사업을 정비하고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영에 앞장선데 따른 것이다.

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현장행정

강화 및 지도·감독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추진해 왔으며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꾀했다.

또한 각종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전에 군수 및 간부공무원이 미리 현장을 방문,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다.

특히 지난 2010년 조성농공단지개발하면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으

로부터 2025년 상환조건으로 발행한 50억원의 기채를 2013년 말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원과 그동안 절약한 일반회계 36억원을 투입해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빛이 한 푼도 없는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현재 보성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50억원, 비봉 공통공원 조성사업 370억원, 꼬막웰빙센터 및 꼬막종묘 배양장 조성사업 180억원, 관광녹차 생태공원 조성 187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70억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채 95억원을 승인받았지

만 발행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정중해 군수는 “현안 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의 살림규모는 연간 4508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역시 양호하며, 2013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남신보재단 광양지점 개점 기념 ‘어울림 한마당’ 행사

## 지역 소상공인 신용보증 편의 제공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광양만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지원 등 편의를 위해 12일 오후 광양 시청에서 광양지점(지점장 조정란) 개점을 기념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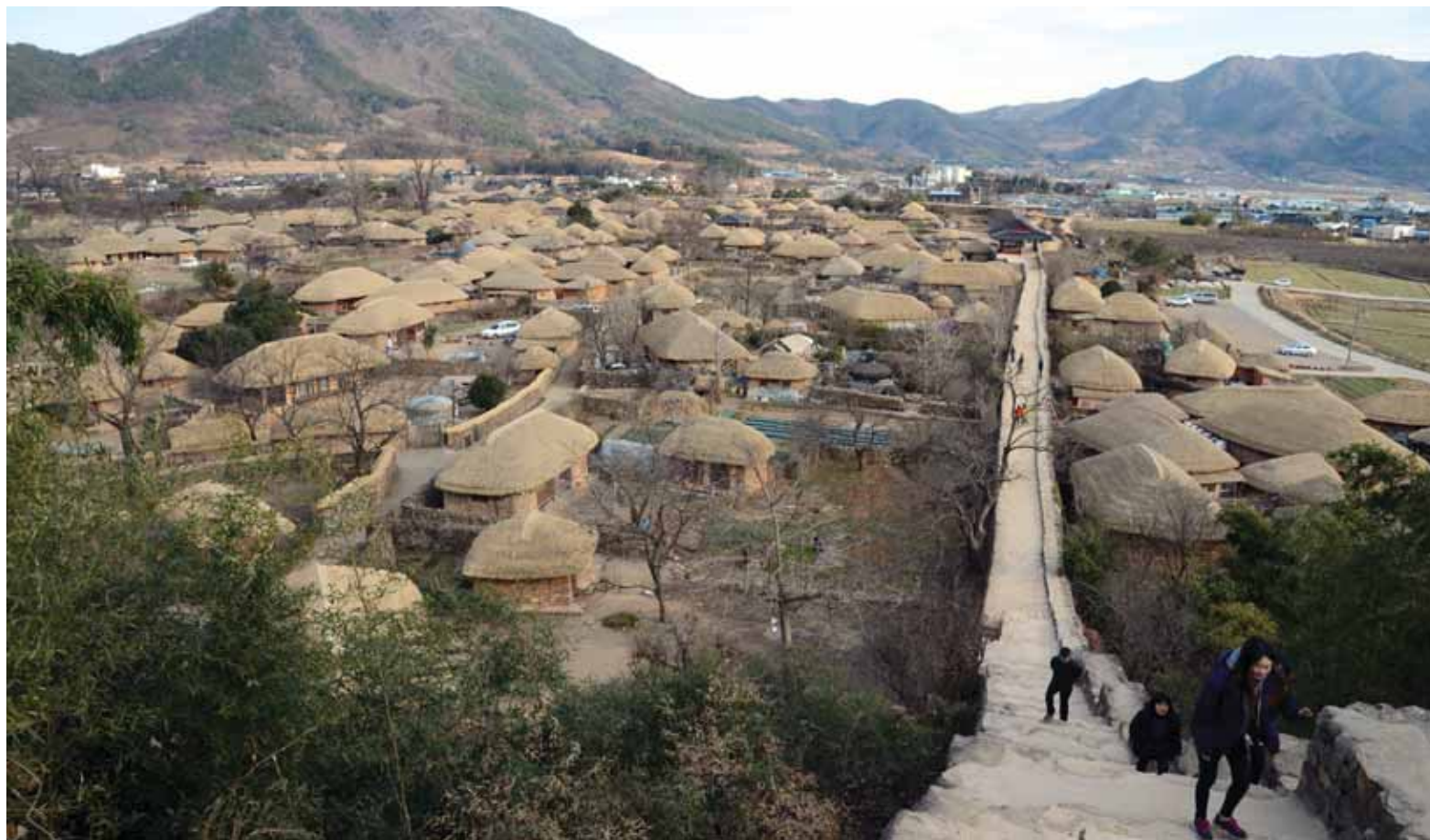
개점식 ‘어울림 한마당행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이성용 광양시장,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임종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 유관기관 임직원 및 지역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지점은 그동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수까지 가야 했던 광양 지역 소재 9000여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광양지점 2층에 개점했다.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점 내 북카페를 개설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무료 휴식공간까지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선샤인(Sunshine) 특례보증 출연협약’도 체결했다. 광양시에서 2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전남신보에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12배인 총 24억원의 신규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게 된다.

이제연 전남신보 이사장은 “지난해 재단 전체 보증금은 3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20% 늘어난 36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고 이중 광양지점에서는 33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완도와 나주지점을 추가로 개점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낙안읍성 작년 120만 관광객 다녀가...순천 낙안읍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12일 성곽을 밟으며 토속적인 민속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낙안읍성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간 120만명이 찾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정남진 장흥 칠거리

매월 넷째주 토요일

문화 베품시장 연다

장흥군은 침체된 장흥읍 칠거리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남진 장흥 칠거리 문화 베품시장’을 다음달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베품시장은 ‘정남진장흥 토요일시장’ 전 지역을 문화공간화해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장흥토요일시장이 시작되는 장흥읍 칠거리에서 부터 150m 상가구간에 일반참가자코너, 계절별테마를 품코너, 생태체험코너, 귀농귀촌인코너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주재와 계절별로 생활용품과 예술품, 도서, 가구 등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나눔장터의 공간이 될 전망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 장흥 칠거리 문화베품시장 운영을 위해 실과소 서무계장과 읍면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세부적인 계획을 상호 협의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현대삼호중 ‘AI 농가’ 돕기 앞장

### 구내식당 식단 ‘닭·오리 메뉴’ 대폭 늘려

### 5월 말까지 7만3000여마리 소비 계획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조류독감(AI) 파동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오리, 닭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

12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 식단에 ‘닭과 오리 메뉴’를 대폭 늘렸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조·중·석식 메뉴에 삼계탕, 닭튀김, 닭볶음탕, 닭칼국수, 오리불고기, 오리탕 등을 포함시켜 오는 5월 말까지 7만3000여

마리를 소비할 계획이다.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은 국내외 선주사로부터 주문받은 석유시추선, LNG선,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건조하느라 1만2000여명의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하루 평균 구내 식당 이용이 1만7000여명분에 달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지역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전제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직접 닭

과 오리 소비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일부 AI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AI 안전지대의 농가에서 길러 위생처리해 납품받고 있는데다 섭씨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오리, 양계 농가 돕기 외에도 쌀 소비, 영양사랑 상품권 판매, 장학금 지급, 공연 유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영양=대성수기자 dss@

## 보리밭기, 효과 입증

### 농기원, 청보리 등 생산량 40% 증가 확인

“과룩과룩 씹이 오른 보리를 꼭꼭 밟아 줬던 보리밭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2일 대표적 사료작물인 청보리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대해 놀러주기(진압·鎮壓)만 잘해도 생산량이 40%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진압 작업은 겨우내 제대로 자라지 못했던 사료작물이 2월 초순부터 생육이 활발해지면서 웃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올 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아 봄철 생육이 빨라진 것도 놀러주기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도 농기원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대상으로 놀러주기 여부에 따른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하지 않은 경우 건조 기준 5467kg에 그쳤으나 한 경우는 7659kg로 무려 2192kg이나 많았다.

놀러주기에 맞춰 웃거름을 주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도 농기원은 당부했다.

전남지역 웃거름 살포 시기는 평균 기온이 섭씨 5~6도 이상이거나 새 뿌리가 2~3개 나오는 시기로 이달 15일께가 가장 적당하다.

웃거름은 3월 초순까지 2차례 나누어 살포하면 초기생육과 뿌리내림이 양호해져 생산량을 2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